

이베코코리아, 영남권 첫 번째 판매 거점 부산 전시장 신규 개소

- 약 957m², 총 2층 규모의 영남 지역 첫 번째 전시장 신규 오픈
- 대구와 울산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 영남권 고객 접점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제고 기대
- 시승 기회 제공 및 전문상담 통해 낮은 총소유비용, 지속가능한 수익성 등 이베코만의 핵심 가치 전달



[2021년 3월 24일, 광주]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이베코(IVECO)의 한국지사인 씨엔에이치인더스트리얼코리아(이하 이베코코리아, 지사장 최정식)가 24일, 부산 전시장을 신규 오픈한다.

새롭게 문을 연 부산 전시장은 산업단지가 밀집해 상용차 수요가 높은 영남 지역에 위치한 이베코의 첫 번째 전시장으로,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및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대구, 울산 등 영남권 주요 광역시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또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항 및 2023년 하반기에 개장 예정인 부산 신항과도 인접해 있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접근성을 갖췄다. 이베코는 이번 부산 전시장 개소로 부산 및 경남 지역까지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해고속도로 진례 IC 인근에 위치한 이베코 부산 전시장은 지상 2층, 전체 면적 약 957m² (약 290평) 규모로, 1층과 2층에 최대 3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는 대형 트랙터 1대와 뉴 데일리 상용밴 2대가 전시돼 있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국도, 고속도로 등 다양한 주행코스에서 뉴 데일리 상용밴을 자유롭게 타볼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부산 전시장은 이탈리아 이베코 본사의 엄격한 전시장 표준 규격과 브랜드의 새로운 CI를 적용해 한층 심미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베코만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운송기술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와 따뜻한 나무 소재의 소품을 활용, 브랜드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의 가치를 시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 층은 최신 모델의 전시 공간과 고객 휴식을 위한 고객 라운지로 구성된다. 2 층에 위치한 고객 상담 공간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이베코의 최신 프로모션과 고객맞춤형 금융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포함한 구매상담과 함께, 낮은 총소유비용(TCO)과 최적의 운행조건 유지를 위한 이베코만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베코코리아 최정식 지사장은 “영남권은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용차 시장으로, 새롭게 오픈한 부산 전시장이 영남권 고객들께서 이베코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베코코리아는 2021 년 2 월 기준, 전국 12 개 영업지점(이베코 전용 전시장 3 개소 포함) 및 20 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

이베코(IVECO) 소개:

이베코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NHI)와 이탈리아 증권거래소(MI: CNHI)에 상장된 자본재 부문 세계적인 기업인 CNH Industrial N.V.의 브랜드로, 소/중/대형 상용차량, 오프로드 트럭, 다목적 트럭 등 광범위한 분야의 차량을 설계 및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베코는 차량 총중량 기준 ▲3.3~7.2톤 소형상용차 데일리(Daily), ▲6~19톤 중형상용차 유로카고(Eurocargo), ▲16톤 이상 대형상용차 스트랄리스(Stralis), ▲16톤 이상 오프로드 차량 트랙커(Trakker) 등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다목적 트럭과 특수차량을 제조하는 이베코 아스트라(IVECO Astra), 도시운송에 최적화된 차량을 제조하는 이베코 버스(IVECO BUS), 군용차량을 제조하는 이베코 디펜스(IVECO Defense Vehicles)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약 2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7개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다. 160개국 이상 4,200여곳의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문의:

씨엔에이치인터스트리얼코리아
드밀커뮤니케이션

조관주 상무 (010-6784-0588 / kwanju.cho@iveco.com)
임봉선 실장 (010-8923-5635 / debbie@demillpr.com)
황현수 대리 (010-9879-9902 / soo@demillpr.com)